

소애 맹화섭 선생의 생애에 대한 연구

박영환
시증한의원

A Study of Maeng Hwa-seop's Life

PARK Yung-hwan
Sijoong Korean Medicine Clinic

Maeng Hwa-seop (1915-2002) was born in 1915 in the Pundang neighborhood of Tolma township in Kwangju prefecture. After graduating from Pangyo primary school, he got a job at House of Gold and Jade (Kumhodong) in Dangjutong at the age of 17 and started learning Korean medicine. In 1939, he worked as a rural government official in Kwangju prefecture and became famous as a good doctor. In 1957, he got a license in Korean medicine and in 1958, he opened the Maeng Hwa-seop Korean medicine clinic in Anam-dong 5-ga. He started a clinical lecture, which began in 1970 for Professor Maeng Woong-jae, continued until 2001 and trained many students. Maeng died in May 2002 at the age of 88. He left clinical records as an outstanding clinician. He was not only famous among Korean medical doctors, but also a great scholar who was widely respected for his noble personality. His book, Guide to Medical Prescriptions (Pangyak chich'im 1976), is a clinical textbook and history book representing Korean medicine in the 20th century, and is still widely used in medical contexts.

Key words : Maeng Hwa-seop, Maeng Woong-jae, Korean medicine, Pangyak Happ'yon, Donguibogam, Life story

I. 머리말

소애(小涯) 맹화섭(孟華燮) 선생(1915~2002)은 20세기 한의학사(韓醫學史)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로써 생전에 수많은 저술과 논문을 남겼다. 선생의 저서로는 『漢醫藥·鍼灸·民間藥 臨床研究 I』(1964)¹⁾과 『方藥指鍼』(1976)이 있다. 또 『方藥指鍼』 강의를 녹취하여 발행한 『方藥指鍼講義抄錄』(1985)²⁾과 이를 활자화하여 정식 출판한 『方藥指鍼講座』(1999)³⁾가 있으며 채인식(蔡仁植) 선생과 공동 번역한 『醫方集解』(1984)가 있다. 필사본으로는 『寶鑑抄錄 <春

鑑錄>』(1979), 『類聚方廣義』, 『金四物方及保幼方』(1999)⁴⁾, 『校正圖註脈訣』(1991) 등이 있다. 맹화섭 선생은 뛰어난 일본어 실력으로 다수의 일본의학 명저를 발굴하여 국내 한의계에 소개하였는데 『桑韓醫談』(1981), 『藥徵』(1978) 등이 대표적이며 『脈法私言』(1999), 『傷寒論解說』(1999), 『和順 古今方彙』(1999), 『方彙·口訣』(1999), 『金匱要略講話』(2000), 『方技雜誌』(2000), 『栗園先生一夕話』(2000), 『蕉窓雜話』(2000), 『療治經驗筆記』(2000), 『鍼灸讀本』, 『古方藥義』⁵⁾ 등을 모두 자비(自費)로 번역, 감수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힘을 썼다. 이뿐만 아니라 『醫林』에 32개의 논문, 『大韓韓醫學會誌』와 일부 대한한의학회 소속 분과학회 학회지에 20개의 논문을 발표⁶⁾하는 등 임상을 하면서도 왕성한

접수 ▶ 2022년 04월 29일 수정 ▶ 2022년 05월 16일 채택 ▶ 2022년 05월 20일
교신저자 ▶ 박영환,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 11-1 시증한의원
Tel : 02-736-3654 E-mail : ocger@hanmail.net

- 1) 맹화섭. 『漢醫藥·鍼灸·民間藥 臨床研究 I』. 서울:信一文化社. 1963.
- 2) 맹화섭. 『方藥指鍼講義抄錄』. 익산: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 연구반. 1985.
- 3) 맹화섭. 『方藥指鍼講座』. 서울:대성문화사. 1999.
- 4) 안상우. 「小涯 孟華燮 20세기 전통임상교육의 사표 -대표저작과 학문세계를 중심으로-」. 경기도한의학회 역대의학인물 제20회 학술심포지엄. 2019. 이 책은 구한말 명의 김사물의 처방집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순화병원(順和病院) 한방주치의 이을우(李乙雨)씨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안 병국(安秉國) 선생이 이기(移記) 보관하고 있었는데 1957년 8월에 맹화섭 선생님께서 필사해서 소장해 오시던 것이라고 한다. 1999년 4월 제자들이 전산 입력하여 출간하였다.
- 5) 『淺田流漢方 濟世堂論叢—木村長久遺稿集—』에서 상한론 처방 공부에 도움이 되는 2편을 발췌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학술활동을 하여 한의학자로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약업신문에 지속적인 투고를 하여 한의학 지식의 저변확대에 헌신하였으며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발행한 『臨床經驗方』(1985)⁷⁾이나 동대문구한의사회에서 발간한 『臨床經驗方集』(1989)⁸⁾에도 처방과 의안을 투고하는 등 한의사협회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맹화섭 선생은 1970년부터 30여 년간 평생을 한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方藥指鍼』 강의를 하였다. 선생의 강의는 일제강점기를 지내며 겨우 명목을 이어온 한의학을 후학들에게 빠짐없이 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은 2000년 3월 30일 필자가 녹화한 맹화섭 선생의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필자의 다른 녹화 파일⁹⁾을 모아 맹화섭 선생의 생애를 정리한 것으로 맹화섭 선생의 행적을 출생부터 해방시기까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맹화섭 선생의 진솔하고도 가감 없는 개인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한의학의 역할과 해방 후 사회 상황의 일면(一面)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맹화섭 선생은 2000년 당시 86세¹⁰⁾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계셔서, 1년 단위로 날짜까지 기억하였다. 따라서 맹화섭 선생의 강의 기록은 의과학적으로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문에서는 선생의 생애를 넷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는데 첫 장은 맹화섭 선생의 출생에서 관공립보통학교 졸업까지이며, 두 번째 장은 당주동 금옥당약국에서 평양 법교국까지의 생애이고, 세 번째 장은 광주군 면서기로 취직하여 해방될 때까지의 생애이며, 네 번째 장은 해방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주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생애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해방 이후의 생애는 맹화섭 선생의 3남인 맹웅재 교수¹¹⁾의 고증을 통해 다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方藥

指鍼』의 발간 동기를 소개하며 소애 맹화섭 선생의 학술상을 짧게 고찰하였다.

II. 본문

1. 생애 1기(1915년~1930년 : 1세~16세) :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소애(小涯) 맹화섭(孟華燮) 선생은 1915년 1월 8일(음)¹²⁾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분당리에서 신창맹씨(新昌孟氏) 신창군파(新昌君派) 22세손(世孫)으로 아버지 정술(正述)¹³⁾(1884년 9월 26일~1953년 6월 18일)과 어머니 단양이씨(丹陽李氏)(1877년 2월 22일~1929년 2월 7일)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맹화섭 선생은 어린 시절 일본의 수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년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그렇게 일본이 되었는데 그놈들이 와서 농사짓는 법 전부 다 개량시켰거든. 개량시키고 거름 비료 다 만들어서 가져다 비료 팔아먹고, 거름 팔아먹고. 또 농사를 짓는데 그게 그냥 덮어놓고 심던 걸 줄모를 심어라 뭘 하라 이러니까. 줄모로 심지 않으면 때리고 욕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럼 그래야 그놈네가 또 우리나라에서 쌀 일본으로 가져가 일본으로 다 가져가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거 가지고 저 북간도에서 좁쌀을 사다 먹으면 그건 값이 싸잖아요. 거기 꺼싼 거 사다가 우리한테 또 비싸게 팔아먹잖아요.

6) 김남일. 「의림과 대한한의학회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맹화섭의 학술활동」. 한국의사학회지. 2021;34(2):98.
 7) 맹화섭. 「流行性 毒感의 治法」: 崔春根. 『臨床經驗方』. 초판. 서울:서울특별시한의사회. 1985:138.
 8) 맹화섭. 「知覺神經麻痺·表裏麻痺卽血痺. 高血壓」 「薏苡仁湯(名醫指掌)」 「麻杏薏甘湯」 「加味大柴胡湯」 「加味化痰湯」 「九味半夏湯」 「黃芪桂枝五物湯」 「防己湯」 「桂枝加朮附湯」 「桂枝加朮附湯加薏苡仁湯及防己湯材」 「桂枝芍藥知母湯」 「當歸拈痛湯」: 『臨床經驗方集』. 초판. 서울:동대문구한의사회. 1989:29-32, 151-160.
 9) 1999년 8월 27일, 2001년 9월 21일, 2000년 4월 20일, 2001년 4월 9일 녹화본 등이 있다.
 10) 2000년 3월 30일 녹화본에 따르면 “나는 대정(大正) 4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명치(明治)가 죽을 때 우리나라를 집어먹고 바로 죽었어. 그러니까 명치 죽은 지 4년 만에 태어난 사람이야. 명치(明治) 죽은 지 4년 만에, 대정(大正) 4년이지요. 86년 전에, 내가 88살이니까, 86년 전이거든. 그때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라 대한제국(大韓帝國)이지...”라고 하였다. 즉 선생은 88세라고 하면서 태어난 것은 86년 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나이 계산을 다르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나이로 계산하였다.
 11)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역임(1976~2012). 한국의사학회 회장 역임. 저서로는 『傷寒論概說』과 『原文對譯 刪補名醫方論』 등이 있다.
 12) 양력으로는 1915년 2월 21일이다.
 13) 맹웅재 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마을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할아버지 맹정술은 한학공부에 뛰어난 실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서당은 그날 수업한 내용을 저녁까지 외워야 집에 갈 수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어린 맹정술은 아침에 책을 한번 읽고 하루종일 놀다가 저녁에 돌아와서도 틀리지 않고 암송해 내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또 천기(天氣)를 읽을 줄 알았다고 한다. 선생의 큰아버지 맹영술(孟榮述)도 학자였으며 서울 금호동에 거주했는데 방안에 28宿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맹화섭 선생님의 뛰어난 기억력은 아버지 맹정술에게서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를 먹는데도 조밥도 제대로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서 아침에는 밥 해 먹고 저녁에는 죽 쑤어 먹고 그래야지. 그냥 조밥이라도 제대로 먹은 줄 아세요? 저녁에는 죽 쑤어 먹고 아침에는 밥해 먹고 낮에 굶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우리 어려선 그렇게 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형편이 없었지. 그러니까, 병이 더 많이 날 것 아니요?

맹화섭 선생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관교공립보통학교(14)에 입학했는데 학교를 처음 지으면서 입학했다고 하였다(15). 학교는 1922년에 개교하였으므로 선생이 학교에 입학 할 당시 2학년까지 밖에 없었다. 선생은 그 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내가 자라서 공부할 때, 그러고는 두 면에 학교가 하나씩이야 보통학교가, 그래서 그것도 내가 들어갈 때도 낙생(樂生)하고 돌마(突馬)하고 둘 만인데 돌마면은 없고 낙생면에다가 학교를 하나 지었어, 짓는데 6학년을 짓는 게 아니라 4학년까지만 집어넣어. 교실이 5개여, 그래서 하나는 교원들 쉬는 사무실이고, 4개 한 학년씩 있는 거야. 그래서 4학년까지 있고, 교장이 왜놈이 와 있는데, 교장 그놈은 4학년 가르치고, 한국 사람 셋은 저기 1학년, 2학년, 3학년 가르치고 그랬어요. 내가 4학년 될 때는 4학년이 졸업을 맡았는데 어디로 가? 갈 곳이 없지. 갈래면 광주(廣州) 경안(慶安) 6학년 있는 학교로 가서 거기 가서 밥을 사먹고, 거기 가서 자고, 그러면서 다녀야 될 텐데, 그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놈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못가죠! 그래서 4학년 졸업을 맡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4학년 가르치는 옆에다 책상을 한

줄 더 놓고서, 거기만 그 다른 학교는 갈 수 없고, 또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거기 와서 앉아서 배우라. 그래 가지고 거기다 앉아 놓고선 가르친다고. 그건 원 학교에 법칙은 없는 건데, 그 4학년 가르치던 일본교장이 그 특별히 놓고선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옆에다 놓고서는 국어시간에는 국어라고해서 왜(倭)말로 읽는 거니까, 그런 걸 공부하고 앉혀놓고 그렇고 4학년들 배운 다음에, 국어시간에 국어를 우리한테 물어보거든, 그래서 국어시간에 누가 하나 일어나서 읽어봐라 해.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죽 냅다 읽으면 그러면 다 외웠으면 그것으로 된 거야. 그 다음 시간에 판거 넘어가고 그랬지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선 1, 2년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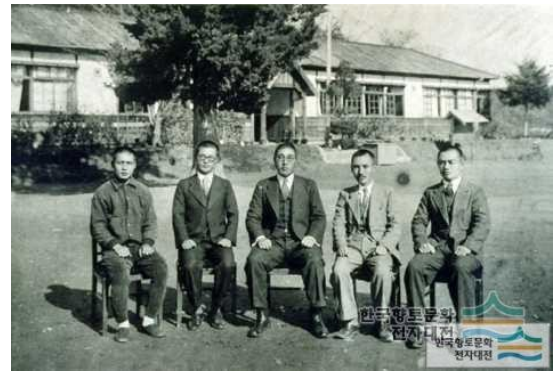


그림 1. 일제강점기 당시 관교공립보통학교
소애선생이 다닐 때보다 교원이 1인 늘었다.

선생이 6학년 때인 1929년 2월 7일(양력) 지병을 앓았던 어머니 이씨(李氏)가 지병으로 사망(16)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였으며 같은 해 3월 말쯤 학교에 가서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 후에는(15세) 산(17) 넘어 큰댁이 있는 광주읍(廣州邑) 곧은골(直洞)(18)에 아버님과 누이(19)와 함께 가서

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관교보통공립학교” 디지털성남문화대전 < http://seongnam.grandculture.net > (2022.3.1.) “현 낙생초등학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관교로74번길 11번지. 1922년 개교. 개교 당시에는 4년제로 졸업 후에는 경안(慶安)에 있는 6년제 광주보통학교나 남한산성 보통학교에 진학해야 했다.”
15) 녹취록에 따르면 입학 당시 2학년 밖에 없었고 교사를 신축했다. 따라서 1923년 4월에 입학하여 1929년 3월에 졸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맹화섭 선생은 한국 나이 10살에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였으나 계산해보면 한국 나이로는 9살이다. 당시 학교에서는 조선말을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보통학교는 4월 5일에 입학식을 하고 1년 교육을 시작하였다. 1학기 종업식은 7월 20일이었으며, 8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이 하계 휴업일(여름 방학)이었다. 2학기는 8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고, 1월 14일까지 약 20일 동안이 동계 휴업일(겨울 방학)이었다. 3학기는 1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다음 입학식까지는 학년말 휴업일(봄 방학)이었다.
16) 맹화섭 선생이 3살인가 4살 때에 어머니 이씨(李氏)가 낳은 딸이 출산 후 얼마 있다가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버지가 공동묘지에 묻고 다녀오시는 동안 산후조리를 하던 어머니는 열집의 소죽 쑤는 따뜻한 방에 머물러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서 집으로 왔는데 당시 밤이 장시간 비어있어서 냉기가 심했고 그때 천식이 생겨 이후로 숨이 차고 기침을 하고 겨울만 되면 밖에 못 나오게 되었다. 돌아가시는 날은 저녁이었는데 맹화섭 선생과 누이가 뛰어놀고 있으니 어머니 이 씨가 피곤해서 잠을 자야하니까 조용히 해 달라고 하면서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서 기दै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음력으로 1928년 12월 28일). 그믐날이 장사였는데 집안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곧은골로 넘어가는 산 꼭대기 모퉁이 장고개 옆에 묘를 썼다고 한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였다. <녹취록 발췌>
17) 즉 영장산(靈長山)이다. 맹웅재 교수에 따르면 당시 분당에서 곧은골로 갈 때는 율동공원의 분당저수지를 지나 영장산의 장고개를 넘어갔다고 한다.

화전(火田)을 일구어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드는 농사일을 1년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맹화섭 선생은 양서방네에서 눈에 모를 내는 일을 도와주다가 갑자기 학질에 걸려 몸이 떨리면서 눈에 쓰러졌다. 선생은 큰댁 사랑에서 며칠을 앓고 혼수상태에 있다가 겨우 깨어나게 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맹정술은 1년 동안 경작해 온 농사를 접고 맹화섭 선생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한다²⁰⁾.

2. 생애 2기(1931년~1939년 : 17세~25세) : 한의학에 입문(入門), 건강을 회복하다.

맹화섭 선생은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방 한 칸 얻어서 지내는데 마침 맹화섭 선생의 큰아버지 맹영술(孟榮述)이 친구분에게 부탁하여 서울 당주동에 위치한 금옥당(金玉堂)약국²¹⁾에 사환(使喚)으로 취직하게 된다²²⁾. 선생은 금옥당약국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배우며 근무하였는데 약국 주인인 조명호(趙明浩) 선생²³⁾은 맹화섭 선생이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며 스스로 공부하도록 가르쳤다. 선생은 제반 약재의 감별법, 법제 방법, 관리법 등을 조명호 선생에게 직접 배웠으나 한자 읽는 법 등의 한의학 지식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약국에 놀러 오는 조명호 선생의 친구분들²⁴⁾에게 틈틈이 배우야 했다. 나중에 약을 지을 정도로 숙련이 되자 조명호 선생은 맹화섭 선생에게 처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선생은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래 그 집에 와서 약 심부름 해 준거거든, 약 심부름 해 주면서, 거기서 이제, 밥 얻어먹고 또 글자 약을 지으려면 글자를 알아야 약통을 뽑아주지 그래야 약을 짓지. 이걸 당귀통이다 작약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작약통, 요건 당귀통, 요건 천

궁통 가르쳐 주니까 그건 천궁하면 천궁통 빼고 당귀하면 당귀통 빼고 하니까 요렇게 쓰면 당귀구나 요렇게 쓰면 천궁이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지. 글자도 그러면서 글자를 읽으면서 배우면서 근데 또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여쭙보면 될 텐데, 밤낮으로 해도 약국 일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다 못해. 뭘 하려면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려면 “너 약통 다 채웠니?” “약 볶을 것 다 볶았니? 뭘 했니?” 이러는데, 그거 안 하고는 “너 네 공부만 하려고, 내가 너 넣었느냐고”, 야단할 것 아니야. 그러니 선생님께 물어도 못 보고 선생님 친구분들이 오면 친구 양반들한테다 이렇게 “이 글자는 무슨 자(字)예요? 무슨 자(字)예요?” 물어보거든 그러면 날 갔다가, 옥편을 열른 갖다 놓고 이렇게 찾으려면 옥편에 있지 않느냐 하고 찾아서 또 글자를 보여 주거든. 그럼 난 글자 밑에다 한글로 무슨 자라고 썼으니까 그 선생님 친구가 가르쳐준 그대로거든, 그러니깐 그 옥편 배우는 법도 보는 법도 배우고 글자를 배우죠. 그리고 그 집에서 일만 죽도록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일 배운 거야.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안 계실 때 통장(通帳)들을 가지고 약을 지으러 오는 분이 있으면, 그게 선생님이 안 계신데! 약은 지으러 왔는데 어떻게? 그러니깐 뭐 어디가 어때서 오신 거예요? 물어보면 아 누가 어디가 아파서 그런다고 그럼 선생님이 짓는데 무슨 약을 어떻게 짓던데요. 그러거든, 그럼 그대로 지어다오 그래, 내가 다 지어주거든, 그럼 갖다 먹고 나아! 아 그러니 선생님이 안 계실 때도 그렇게 지어주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는 손님도 선생님 안 계실 때 오면 물어봐 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약도 하던데요, 당신도 지어 갈래요? 물어보지. 그럼 지어달라고 하거든. 지어주면, 그럼 먹고 나아. 그럼 저녁에 선생님이

18) 고불 맹사성 선생의 묘가 있는 곳이다.

19) 누이의 나이는 6살 아래라고 한다. 1929년 당시 9세. 『方藥指鍼講座』. 서울:대성문화사. 1999:1383.

20) 일반적으로 학질은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모는 하지(夏至) 전후로 낸다. 따라서 15세에 농사를 시작해 1년을 짓고 그 다음 해에 눈에 모를 내다가 학질에 걸린 것이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아버지와 맹화섭 선생님 모두 체력이 약해 노동일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다른 일거리를 찾아 지냈다.

21) 종로구 당주동 30번지 근처에 있었다. 2015년에는 재개발되어 포시즌스호텔이 들어섰다.

22) 녹취록에 따르면 이때 선생의 나이가 17세, 대략 1931년이다. 취직 후 아버지 맹정술은 바로 시골로 내려가시고 서모(庶母)를 얻어서 사셨다. 약국의 일은 농사보다 매우 쉬웠다고 하셨다.

23) 약국 주인인 조명호 선생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에 본집이 있는 대지주이다. 서울 당주동의 집도 문간방에서 드난살이 할 정도로 큰 집이었으며 뒤에 금옥당약국이 있었다. 금옥당약국은 본래 조명호 씨의 아버지 조재희씨가 약종상 허가를 얻어 개원한 것이다. 조명호 선생은 실제로는 면허가 없었다. 조명호 선생이 일본으로 건너간 뒤 조명호 선생의 막내 아우가 약국을 이어서 운영했다. 조재희 씨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서울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녹취록 발췌>

24) 韓醫師協報 (1987.6.10.) “어떻게 지내십니까 孟華燮씨” 한의신문 < <https://www.akomnews.com> > (2022.3.1.) 취재기사에 따르면 서병효(徐丙孝), 김해수(金海秀), 박용신(朴鏞信)이라고 한다.

오시면 “아무개는 통장을 가져와서 무슨 약을 지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지어주었어요. 또 누구는 어떻게 와서 뭐라 그래서 이런 약을 지어주었어요” 하지, 그럼 선생님이 잘 내렸다 하고 또 어떤 거는 “요 다음에 와서 뭐 하거든, 거기다 뭐 뭘 넣어라” 그러기도 하고 “빼라” 하기도 하고 “다른 약을 지어줘라” 그런 얘기도 하

지.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으니 그 다음에 오면 그대로 지어주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어주지. 그러면 갖다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니 약성가(藥性歌)도 이론도 보지도 못하고 약을 지어줬어요²⁵⁾. 그렇게 해가지고 배운 거라고 이게.



그림 2. (左) 금옥당약국이 있던 곳에서 약국 건물을 확인하던 맹화섭 선생. 현재는 재개발되어 포시즌스호텔이 있다. 박영환 촬영. (右) 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자택은 사직단 정문 앞 왼쪽 골목에 있었다(1946년 미군정 SEOUL 지도).

맹화섭 선생이 금옥당약국에서 지낸 지 3년째 되는 해에 조명호 씨는 일본으로 가게 된다. 맹화섭 선생도 자연스럽게 약국 일을 그만두게 된다. 이후 일본에 있던 조명호 씨는 맹화섭 선생에게도 일본으로 건너오라고 연락을 했지만 선생은 홀로 남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일본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후 금옥당약국을 그만둔 맹화섭 선생은 중고 자전거를 하나 구입해서 다니면서 처방전을 받아 건재국(乾材局)에 가서 약재를 소량씩 구입해서 약을 지어다 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을 시작한다²⁶⁾.

내가 약국을 그만두고 약장사를 댕겼어요. 약장사. 약장사를 처음에 댕기는데 돈이 있어야 약을 가지고 사러 댕기면서 저런 거는 한 짝씩 두 짝씩 사서 놔 놓구

선 거기서 내가 팔면은... 약장수가 건재약국에 가서 사다 파는 거는 그렇게 하면 돈이 남는 건데.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 조그만 약국에서 한 근씩 두 근씩 사 달래는 거를 사다 주구선 거기다 몇 폰씩 얻어먹는 거지... 그런 장사를 했어요. 내가.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약국 일을 배웠는데 그거나 해야지.

당시가 19~21세 때인데 마침 약국을 다니시던 동네 분들의 소개로 맹화섭 선생을 사위 삼겠다는 분이 있어서 1935년 22세 때 봄에 사직단 앞²⁷⁾에 거주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1914년 1월 5일~1995년 12월 5일)(음)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²⁸⁾. 결혼 후에도 맹화섭 선생의 생활은

25)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씀과는 다르게 『方藥指針講書』에는 당시에도 『方藥合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능숙하게 처방을 하였다는 기록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26) 약재를 대량 구입해서 조제를 해야 이익이 많이 남는데 약재를 한 근(斤) 두 근씩 소량으로 비싸게 구입해서 약을 조제하다 보니 크게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당시에도 열냥(十兩)풀이를 했는데 약재 한 근(600g) 16냥을 열냥으로 계산해서 이익을 남겼다. 만약 당귀 한 근이 1600원이면 한 돈(錢)은 1/16인 100원인데 이를 160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첩약을 조제하는데 당귀가 10돈이 들어가면 본래 원가는 1000원이 되어야 하나 1600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조제료와 여러 부대비용을 추가하였을 것이다.
27) 맹웅재 교수에 따르면 사직단 정문에서 왼쪽 골목에 있었는데 집안에 커다란 무쇠 목욕통이 있어서 솔처럼 아궁이에 불을 때서 목욕을 했다고 한다. 현재는 도로로 편입되었다.
28) 전주이씨(全州李氏)는 1914년 1월 5일(음) 임인생(甲寅生). 덕천군(德泉君) 19대손으로 아버지 인용(寅鎔)은 통정대부궁내부주전원(通政大夫宮內府主殿院) 경무관(警務官)을 지냈다. 결혼일은 1935년 3월 16일이다. 1984년 2월 16일에 한 달 일찍 급훈식을 했다.

넉넉하지 않아 처가살이하는 정도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폐병까지 들어 장사도 못하고 산이나 공원, 도서관 등을 다니며 가을까지 일을 쉬었다.

선생은 가을이 되어서야 다시 일을 시작하였는데 어느 날 감기가 들어 전에 일하던 금옥당약국에 쌍패탕(雙敗湯)을 2첩 지으러 갔다. 그런데 당시 금옥당약국에는 전라도 사람이 와서 돌팔이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²⁹⁾ 그 사람이 “맹씨는 자작(自作)을 해서 안 돼”라고 하면서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을 써보라고 하였다. 구미강활탕은 선생도 잘 아는 처방이고 해서 한번 복용해보기 위해 2첩을 지어왔다. 하지만 집에 와서 1첩을 달여서 복용하자마자 땀이 정신없이 쏟아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며 그 다음날 일어나니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으며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면서 그대로 쓰러졌다.

이 일로 맹화섭 선생은 병석에 몸져누웠다. 그래서 선생은 같은 동네에서 의학을 오래 한 정이모라는 노인에게 진료를 청하였다. 정이모 씨는 맹화섭 선생을 진맥하더니 “땀을 너무 내서 그렇다”며 『方藥合編』의 당귀보혈탕(當歸補血湯)(中118)³⁰⁾에 가미해서 처방을 내주었다. 맹화섭 선생은 병석에 드러누워 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당귀보혈탕을 복용하고 두통이 나은 선생은 이후 자음강화탕(滋陰降火湯)으로 바꾸어 복용하였는데 조금씩 회복되어 거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서울에는 함경도 북청에서 온 북청물장수³¹⁾들이 많이 있었다. 어느 날 나이 40 정도 되는 북청물장수 주씨(朱氏)가 우연히 맹화섭 선생이 복용하는 약을 보더니 “맹씨는 그런 약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선생이 “이런데 그런 약 먹어야지 무슨 약을 먹습니까?”라고 물어보니 “당신이 지금 낫는 거는 약을 조금 먹을 병이 아니니, 상당히 많이 먹어야 되는 병이야! 그러니까, 그 약을

1년을 먹을지, 반년을 먹을지, 십 년을 먹을지 모르지 않느냐? 앞으로 먹을 약을 추측을 못 할 텐데, 지금부터 찬 약을 먹으면, 나중에 위장을 버리면, 맞는 약도 먹을 수 없을 것 아니냐?”라고 조언을 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맹화섭 선생은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에 사물탕(四勿湯)을 합방하고 구기자(枸杞子), 맥문동(麥門冬), 오미자(五味子), 육계(肉桂)를 가미(加味)하여 3년간 복용하였다. 하지만 부부생활을 하면 다시 몸이 나빠지고 해서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내던 중 건재국(乾材局)에서 맹화섭 선생과 같이 있던 사람이 “법교국(法橋局)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구하니 빨리 내려오라”는 편지를 평양에서 보냈다. 선생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평양을 가서 법교국³²⁾에 가보니까, 거기 종로(鐘路)모퉁이 집인데, 아주 커! 거기 이북에서는 제일 큰집이야³³⁾³⁴⁾. 그래서 들어갔는데,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날 보더니 당신은 여기서 노동할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깐, 날 더러 얘기가 어디 가서 사무나 보고, 주판이나 굴릴 사람이지 뭐 이런 일은 못한다고 딱 거절을 한다 말이야. 그러니 날 더러 오라고 한 사람이 그냥 옷을 벗기면서 가서 일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몸은 이렇게 보여도 일은 여기 사람보다 낫게 할 테니까” 그러면서 큰소리로 날더러 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 하는데 가서 같이 일도 모두 내가 해보니까, 아 일 거기 사람 일 하는 거 보다 낫지 못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틀을 하고 사흘 되는 날, 그 주인이 나를 불러, 주인이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³⁵⁾, 그런 사람인데, 주인이 날 불러 그래 주인을 찾아봤는데, 당신은 몸이 그래 약하나고

29) 영업을 잘 했다고 한다. <녹취록발췌>

30) 본래 혈허두통(血虛頭痛)에 사용하는 약인데 소애선생은 상한(傷寒)에 땀을 많이 내서 머리가 아프면서 기운이 없는 자, 아스피린을 많이 먹어 머리가 아픈 자에게 감기약으로 사용했다.

31) 당시에는 북청물장수들이 서울에 많았는데 모두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생은 북청이라는 데가 아주 무서운 곳이라고 하셨다. 북청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물장사할 때 형제 자식들부터 데려다 공부시킨 다음 자기 자식들을 가르쳤다고 하셨다. 물 대주는 집에서 한 끼씩은 해 줬는데 물장수들은 쌀을 아끼기 위해 자기 집에서는 식사를 안 하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얻어먹었다고 하셨다. 또 그 자식들이 성공해서 고관이 된다든지 군수가 된다든지 해도 물지게를 지고 다녔으며 밥도 마루에 올라와 먹지도 않고 부엌이나 추녀 밑에서 먹었다고 하셨다. <녹취록 발췌>

32) 법교국은 계리(鷄里) 22번지에 있었다.

33) 每日申報 (1936.8.26.) “平壤舊街和信越便에 六層『셀딩』出現!” 국립중앙도서관 < <http://lod.nl.go.kr> > (2022.3.15.) 기사에 따르면 “법교국(法橋局)은 평양 화신(和信)백화점의 맞은편에 있었으며 약종상인 법교국의 주인 김석응(金奭應) 씨가 6~7년 전부터 지금 법교국이 있는 대지 420평에 벽돌로 6층 빌딩을 30만 원에 건설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림 3의 평양수복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층 빌딩은 결국 울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이광표 (1972.9.5.) “(2)산·강·길·도시|본사 이광표 특파원 평양 왕래기” 중앙일보 < <https://www.joongang.co.kr> > (2022.3.1.) “서선 일대 최대의 약국이던 법교국 약국, 큰 책방이던 동명서관, 가장 큰 요릿집이던 장춘관, 유명 중국요릿집이던 동승루, 백선행기념관 등은 이미 자취도 없다. 다만 옛 화신백화점은 그대로 남아 복구가 되어 제일백화점이 되었다는 것.”

문데요³⁶).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를 쪽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평양서는 법교국하면 제일 나은 집이고 그런데 당신 약 좀 먹기로서니 내가 그걸로 저거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약은 당신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리고 일만 잘 해달라고 그러데요.

름(12/31)(음)에 서울로 올라왔다³⁷). 맹화섭 선생은 “법교국에서 약을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산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였다.

3. 생애 3기(1939년~1945년 : 25세~31세) : 맹서기, 존경받는 명의(名醫)가 되다.



그림 3. (左上)평양 법교국 동아일보 광고, 1933년 8월. (右上)1950년 10월 평양수복 당시 법교국. 6.25 중에는 적십자회중앙약국으로 사용했다. 옥상 난간에 ‘法橋’라는 간판을 확인 할 수 있다(붉은 원). 화신백화점 맞은편에 있었다. (左下)화신백화점 자리에는 현재 평양 제1백화점이 있으며 법교국 자리는 공터로 남아있다. (右下)당시 평양 화신백화점 광고.

맹화섭 선생은 하루에 두 첩씩 꼬박꼬박 직원들이 달여 주는 약을 드시며 일을 하였는데 부인과 잠자리를 멀리하고 약을 먹으니 양기(陽氣)가 넘쳐 유정(遺精)이 되도록 건강이 회복되었다. 평양에는 1938년 8월에 내려가서 설달고

평양에서 올라왔을 당시 서울에는 맹화섭 선생의 누이가 길씨(吉氏)라는 사람 집에 수양딸로 지내고 있었다³⁸). 그래서 그 집에 왕래가 잦았다고 한다. 길씨 집에는 어떤 사람이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있었는데 맹화섭 선생의 사정도 잘 알게 되어 시골 면서기로 취직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선생은 “면서기로 취직하면 좋지만 보통학교 4학년³⁹ 밖에 나오지 못하여 시험도 볼 수 없고 시험을 봐도 붙을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⁴⁰은 자기 친구가 광주군수(廣州郡守)⁴¹이니 부탁하면 된다고 하였다. 다행히 선생은 그 사람의 덕분으로 퇴촌면 산업지도원으로 잠시 근무하다가 면서기로 취직하게 되었으며 취직과 동시에 선생은 가족과 함께 고향인 돌마면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퇴촌면은 돌마면과는 먼 곳이었으며 매일 출장을 나가야 하였으므로 선생은 한 달에 일주일도 집에 있지 못하였다. 이처럼 평양에 있을 때부터 부부관계를 멀리하게 되다 보니 선생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졌다.

25세(1939년)에 선생이 산업지도원으로 취직해서 내려가니 퇴촌면 면서기가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성관계(犯房)를 한 뒤 극심한 두통이 생겼는데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아 4일 정도 결근했다고 한다. 찾아가 보니 통증을 잊기 위해 경(經)을 읽으며 지내고 있었다. 선생은 진찰을 하고 예전에 복용하였던 당귀보혈탕(當歸補血湯)(中118)에 가미(加味)하여 처방을 내렸는데 1첩으로 완치해서 명의로 소

35) 東亞日報 (1933.6.7.) “平壤 乾材 藥局 法橋局” naver 뉴스 라이브러리 < https://newslibrary.naver.com > (2022.3.10.) 광고에 따르면 법교국 주인 김석응(金奭應)의 아버지 김수철(金壽哲)이 세상을 떠난 지 1달이 채 되지 않아 할아버지 김능원(金能元)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따라서 맹화섭 선생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는 젊은 김석응이 법교국을 운영하던 시기이며 김석응의 나이가 선생보다 5살 정도 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6) 당시 선생의 몸무게는 45 kg이 안되었다고 한다. 체력이 약해서 군대도 갈 수 없었다고 한다.

37) 음력이다. 양력으로는 1938년 9월에서 1939년 2월18일이다. 평양사람들은 서울 사람이 평양에 올 때는 좋아서 오지만 서울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맹화섭 선생에게도 서울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였다고 한다. 맹화섭 선생은 꼭 돌아온다고 옷과 책을 두고 서울로 올라갔으나 이런 저런 일로 결국 평양에 다시 가지 못하였다. <녹취록 발췌>

38) 길 씨 집에는 남편은 없고 부인과 애들만 있었다. <녹취록 발췌>

39) 정식 졸업장은 4학년이다. 6학년 과정을 다 배웠다는 증명서와는 다르다.

40) 그 사람은 당시 광주군수와 일본 구주대학(九州大學)을 같이 다녔다. 그 사람의 ‘친구’는 고등고시 합격을 해서 군수가 되었고 길 씨 집에 머무는 사람은 시험감독원에 다녀다고 하였다. <녹취록 발췌>.

41) 이완범, 김희만. (2001) “전예용(全禮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3.15.) 당시 광주군수는 전예용(全禮鎔)이다.

문이 나기 시작했다⁴²⁾. 시간이 지나면서 맹화섭 선생이 약국에서 일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점점 알게 되었다. 당시 퇴촌면 광동리(光東里)⁴³⁾에 구장(區長)을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의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산후(産後)에 부종(浮腫)이 생겨서 숨이 차고 땀을 많이 흘리며 거의 죽게 되었다. 그 노인이 맹화섭 선생을 불러 진료를 청하였다. 선생의 약을 먹은 며느리는 기적같이 회복하였다. 그 소문 역시 면내에 퍼져서 선생은 가는 곳마다 처방(處方)을 내주고 동네일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줬다고 한다. 선생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거기 광동리(光東里)라는데 구장(區長) 보는 사람이 노인네인데 거기 둘째 아들의 며느님이 산후에 부종이 생겨 가지고 그냥 숨이 차서 이려고 죽게 되서 땀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그 이가 날 불렀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고 일어나기 전에 깨(깨워). 그래서 나가 보니까 그 광동리(光東里) 이장(里長)의 큰아들이 왔어. “어떻게 여기를 왔소?”하고 물어보니, 우리 아버지가 당신 모셔오라고 했소.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제수가 병이 났는데 대단한데, 자기 아버지가 나를 모셔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책을 싸가지고 따라갔죠. 따라가서 건넛방에 들어가 보니 그래, 아~ 밖에 나와서⁴⁴⁾ 산후의 허증(虛證)으로 그렇게 오는 건대 어떡해? 그래 보허탕(補虛湯)에다가 뭘뭘를 가감(加減)해서 처방을 하나 내 주었죠. 그러더니 그거 먹고 거뜬히 나왔어. 그랬더니

그 맹서기가 광동리 이장 작은 며느님을 고쳤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 소문이 면내에 확 퍼져서, 내가 가기만 하면 처방 내주는 게 일이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데서는 처방만 내주면 동네일은 거기에 일을 다 해주고, 나는 가서 처방만 내주고 오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사람이 내달라 하고 저 사람이 내달라 하면, 가 앉으면 처방 쓰다 보면 벌써 해 넘어갔죠. 그래서 가서 내 공부도 하고, 또 면에 가서는 집에 안 오고 그 동네에서 자면서 밥도 얻어먹고, 그러고 월급은 타는 거 아니야? 그래 내 몸도 좋아지고 저절로 낫는 거라. 사람이 살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듬해 3월에 군농회 면작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서부면(西部面)에 발령받았다. 반년 후 가을쯤 되니 낙생면(樂生面)으로다가 전근하라고 통지가 나왔다. 낙생은 지금의 판교인데 선생이 보통학교를 다녔던 곳이고 고향인 돌마면(突馬面)과 가까웠다. 그래서 선생은 자택에서 낙생면까지 자전거를 타고 1년을 출근하였다. 다음 해에는 군농회로 들어가 근무하였다.

선생은 군농회⁴⁵⁾로 들어가면서 광주군(廣州郡) 16면(面)을 전부 출장 다니게 되었다. 맹화섭 선생에게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출장을 가는 데마다 처방을 내어주게 되었으며 요구에 따라 여기저기 왕진을 다니게 되었다. 당시 선생은 자전거 뒤에 책을 싸서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진료 상담해 주었다⁴⁶⁾. 선생의 말단 공무원 생활은 생계를 위한 호구지책(糊口之策)⁴⁷⁾으로 시작한 것인데 선생의 업무는 마을 사람

42) 가만히 약을 지어다 먹은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땀을 많이 내는 약을 먹었던 말야? 그랬는데 안 나오니까 쌍화탕(雙和湯)을 먹었고 그래도 안 나오니 경을 읽는거야. 그래 당귀보혈탕(當歸補血湯)을 내가 먹던 약이니까. 당귀보혈탕(當歸補血湯)에다가 쌍화탕(雙和湯) 이런 식으로 작약(芍藥)을 많이 넣고 거기다 지모(知母), 황백(黃柏)도 넣고 갈증이 생기니까 맥문동(麥門冬), 죽여(竹茹)도 넣고 해서 처방을 해 줬더니 1첩 먹고 정신이 맑아. 그러니까 경 읽는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파. 1첩 먹고 살았다 하더니 다음날 늙은 구서방이 오더니 맹(孟)형이 명의(名醫) 인줄 몰랐다고 하면서 소리를 치네? 그 바람에 광고가 됐지. 그 다음 출장만 나가면 처방 만드는 것이 일어났어. 광주에서 6-7년 동안 공무원 노릇했는데 나는 앉아서 처방만 내주고 내가 할 일을 (마을사람들이) 다 해다 봐. 孟華燮. 『方藥指鍼講座』, 서울:대성문화사, 1999:168.

43) 당시 면사무소 소재지다.

44) 출산 후 산모가 밖에 나와 다니며 찬바람을 맞으며 무리했다는 설명.

45) 선생은 군농회에서 유인목(兪仁穆)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당시 도의원을 지낸 친일파이다. 유인목은 군수, 서장 등과 어울리고 일반인들은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였다. 어느 날 맹화섭 선생은 유인목이 친일을 하는 이유가 궁급해서 “일본놈이 내선일체 내선일체 하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 사람이 죽는데 일본 과부들이 많을 거 아니냐? 그럼 그 과부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유인목이 “이민족(異民族)이 동화되는 법도 있느냐? 없다. 민족이 다르면 아무리 씨불이를 해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면 언젠간 갈라지고 만다. 족속이 다른데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맹화섭 선생은 유인목이 친일을 해도 다른 속셈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녹취록 발췌>

46) 맹화섭 선생은 금옥당약국에 있을 때부터 면서기로 할 때까지 밤낮으로 처방내고 글씨를 쓰다 보니 『方藥指鍼』의 글씨체가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선생은 큰 글씨는 잘 쓴다고 하였다. <녹취록 발췌>

47) 일거리가 거의 없었던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생계가 안정적인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었다. 맹화섭 선생은 가는 곳마다 동네 사람들의 존경과 환영을 받으며 하루 종일 무료 진료를 해 주고 약처방을 내 주었다. 선생을 모셔가기 위해 왕진을 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선생은 당시를 회고하며 “왜정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알지. 왜놈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데... 그놈들 지독한거 말도 못해요. 그놈들 못된 짓 한 거 내가 다 알지.”라고 하였다. 선생은 군청에 근무할 당시 식량을 배급받았는데 쌀밥은 거의 드시지 못하고 보리밥으로 겨우 연명하였다고 한다. 당시 선생의 부인께서 출산 후 영양부실로 자궁하수가 생겨 고생하신 이야기가 『方藥指鍼講座』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들이 알아서 다 해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면서기 생활은 선생의 의학지식을 높이는 수련 기간이 되었다. 선생은 1939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광주군에서 7년간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았는데 그 기간 동안 처방전만 내줬을 뿐 진료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선생은 오로지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지극한 마음으로 진료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⁸⁾.

4. 생애 4기(1945년~2002년 : 31세~88세) : 혼란의 해방기를 지나 한의계의 큰 스승으로

1945년 해방이 되자 맹화섭 선생은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아버지 맹정술이 경안면 역말(현 광주시 역동)에서 개업하고 있던 약국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⁴⁹⁾. 맹화섭 선생은 면서기를 지내면서 광주군에서는 이미 존경받는 명의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동네나 군청(郡廳)에서도 찾아와 약을 지어갔다. 군동회에서 다시 들어오라고 요청이 왔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약국운영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서모(庶母)와 선생의 부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같이 사시는 데 어려움이 있

었다. 어느 날 예전에 토지개량과에 주임으로 농장 돌보던 일을 하던 사람과도 가까웠던 선생의 친구가 “네가 아버지 하구 같이 사는 것만 효부(孝婦)가 아니고, 아버지 맘을 좋도록 해 드려야 네가 그제 더 효다”라고 말하면서 선생보고 따로 나가서 살기를 권유하였다. 그 친구가 자꾸 권유를 해서 맹화섭 선생이 아버지에게 의견을 여쭙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선생은 약제의 반을 아버지에게 나누어 드리고 동부면(東部面) 신장리⁵⁰⁾ 즉 지금의 하남시 석바대로 분가하여 약국을 새로 시작하였다. 동부면에서 약국을 시작한 이듬해 정월 15일⁵¹⁾ 맹화섭 선생과 동갑내기인 면서기가 한지의생(限地醫生)시험이 있으니 보러가라고 소식을 전해주었다⁵²⁾. 그래서 선생은 한지의생 시험을 보게 되었으며 합격⁵³⁾하여 1946년 당시에 한지의생이 없었던 서부면(西部面) 고골(현 하남시 춘궁동)로 나와 약국을 개업하였다⁵⁴⁾⁵⁵⁾. 약 3년 뒤 1949년 맹화섭 선생은 서부면의 약국을 그만두고 구천면(九川面) 곡교리(曲橋里) 즉 현재의 천호동⁵⁶⁾으로 이사해서 새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천호동에서 약국을 개원하고 생활하던 다음 해 6.25가 발발했다⁵⁷⁾. 맹화섭 선생의 가족은 1950년 인민군의 남침⁵⁸⁾으로 끝은골(현재 광주시 직동)에서 피란생활을 했

48) 『方藥指鍼講座』에는 광주군 면서기 시절의 다양한 임상례가 기재되어 있다.

49) 1945년 해방 이전에도 선생은 아버님과 함께 경안면 역말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한약종상이었던 아버지 맹정술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2男 맹현재 님의 기억에 따르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역말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산 기억은 있는데 맹화섭 선생님이 자주 집에 있던 기억은 없다고 하였다. 이는 광주군청에서 일하시며 출장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라 본다. 1945년 8월 4일(음)에는 맹옹재 교수가 태어났다.

50) 즉 지금의 하남시 신장동이다.

51) 해방된 다음 해 정월 15일인가 16일이라고 하셨다. <녹취록 발췌>

52) 1946년 3월 29일 미군정 법령에 따라 보건후생부가 들어서면서 한지의생을 한지한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주연,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통제」, 의과학. 2010;19(2):400. 따라서 맹화섭 선생이 본 자격시험은 한지의생이다.

53) 선생이 봤던 한지의생 시험문제는 약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意思)대로 아는 만큼 쓰는 문제였다고 한다. 당시 출제된 시험문제는 “인생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써봐라”, “일반적으로 腸塞扶斯의 脚氣症狀를 論 해봐라” 등이었다.

54) 미군정 당시에는 개업허가제는 형식으로만 남아 자유개업체제가 되어 원하면 신고 없이 개원이 가능했다. 당시에는 한지의생제도도 있어도 통제가 되지 않아 원하는 곳에 개원이 가능했는데 주로 서울에서 개원했다. 이주연,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통제」, 의과학. 2010; 19(2):387.

55) 고골에서 약국도 하시고 배급소도 같이 하셨다.

56) 2男 맹현재(1939년생) 님의 증언에 따르면 고골에서 동부국민학교를 3학년 때까지(1948년) 다니고 1949년 천호동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3男 맹옹재 교수에 따르면 당시 풍납토성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천호동에 거주할 당시 큰형과 둘째형(현재)은 육인동 이모집에서 덕수중학교 덕수상고를 다녔다고 한다.

57) 현대의 강동구 (2013) “강동의 역사와 문화” 강동문화원 <<http://www.gdgc.or.kr>> (2022.05.11.) 6·25전쟁이 발발하자 구천면사무소에는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대에 편승한 젊은 청년들을 의용군으로 무차별 동원하였고 남아있던 노인과 부녀자는 잔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1·4후퇴 때는 미처 피난하지 못한 우익인사를 상산곡(현재 하남시 상산곡동)으로 끌고 가 마구 총살하였다. 그런가 하면 수복 후에는 방위군에 인계한 좌익분자를 한밤중에 쇠사슬로 묶어 끊어진 광진교 밑에서 창으로 무차별 학살하는 등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적 현상이 되기도 하였다.

58) 6.25 발발 후 미처 피란을 하지 못한 맹화섭 선생은 공산당원들에 의해 광주경찰서로 잡혀가셨다. 차로 끌려가시다가 “맹화섭이는 반동분자이니 즉결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공산당원들이 선생을 차에서 끌어 내렸다. 총살 직전 공산당원 중 한 사람이 맹화섭 선생을 살려주었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선생에게 치료받고 병이 나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맹화섭 선생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숨겨 주었다. 나중에 다른 공산당원들이 찾아와 선생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는데 그 사람의 부인과 어머니가 공산당원들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목숨을 구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로 선생은 한지의생 면허증만 몸에 지니고 서울로 피신하여 처가의 도움으로 숨어 지내시다가 서울 수복 때 국민방위군에 징집되어 광주군 방위군 작전참모를 지냈다고 한다. 서울 수복 당시에는 선생을 살려주었던 공산당원을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한다. 1.4후퇴 이후 서울이 재수복되면서 선생은 군복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오게 되었는데, 선생은 자택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역말의 아버님 댁으로 안부를 확인하러 가시는 바람에 가족들과 소식이 끊겨 전사하신 줄 알고 부인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자

다⁵⁹). 전쟁 중 맹화섭 선생은 국민방위군에 징집되어 행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1.4 후퇴 전에는 산청군에 계셨으며 1.4 후퇴 당시에는 경상북도 영천군 대창면에서 근무하였다. 6.25 당시에도 맹화섭 선생의 아버지 맹정술은 경안면 역말(현재 광주시 역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⁶⁰ 맹정술은 1950년 12월 1일(음)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고 1950년 12월 15일(음) 천호동으로 이사를 와서 맹화섭 선생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⁶¹).

선생은 당시 약국을 운영하면서 면(面) 내의 지서후원회에서 지서일도 보고, 또 학교후원회에서 학교일도 보고, 또 반공청년단 일도 겸해서 하였다⁶²). 1954년 5월에는 신익희⁶³)와 최인규가 경기지역 제3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그래서 당시 자유당 사람들은 맹화섭 선생에게 최인규⁶⁴)의 선거 활동을 도우라고 압박을 하고 야당인 신익희의 험담을 하고 다니라 하였다. 하지만 평소 신익희와 친분이 두터웠던 선생은 신익희의 선거 활동을 도와줬으며 “신익희는 같은 광주사람이고 맹서방네도 쌍놈은 아닌데 신익희 욕을 하고 다닐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맹화섭 선생을 요시찰 인물로 지목해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맹화섭 선생은 지서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하고 오기도 하였다. 당시 약국은 구천면 지서⁶⁵)에서 건너다보이는 위

치에 있었는데 보초를 서는 경찰이 약을 지으러 오는 사람을 감시하고 못 가게 하니 약국을 운영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1954년 봄에 약국을 자마장(雌馬場)⁶⁶)으로 먼저 이전하였고 얼마 뒤 자택도 서울 답십리동 294번지로 이사하였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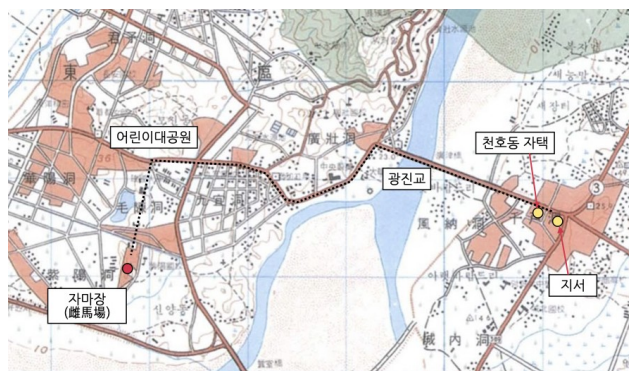


그림 4. 맹화섭 선생의 천호동 자택(약국)과 지서 위치

점선은 10살의 맹웅재 교수가 광진교(광나루다리)를 건너 도시락을 배달하였던 여정이다. 자마장(자양동)에서 선생이 거주하셨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1970년 경기도의 근현대지도).

답십리로 자택 이전 후 같은 해 선생의 처가 쪽 친척의 부탁으로 서울 종로5가의 강원약방⁶⁸)에 취직하였는데 월급

택으로 오셨을 때는 군대 가실 때 입고 계셨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셨다고 한다(5男 맹필재 님 증언).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군대에서 지내셨다고 한다(2男 맹형재 님 증언).

- 59) 맹웅재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곧은골로 피란을 내러온 후 서울 수복 때 다시 천호동으로 올라갔다가 1.4후퇴 때 겨울에 다시 곧은골로 내려왔다고 한다. 1.4후퇴 당시에는 곧은골에 중공군이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
- 60) 역말은 현재 광주시 역동이다. 맹웅재 교수는 6.25때 역말의 할아버지 약국에 놀러갔었는데 당시 시계, 라디오도 있었으며 대청마루에 뒤주, 향아리 구경하신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
- 61) 맹웅재 교수에 따르면 당시 천호동 집은 2채가 나란히 있었는데 한 채는 크고 한 채는 작았다고 한다. 맹화섭 선생의 가족은 큰 채에 살았는데 건너방에 약국이 있었으며 작은 채에는 맹화섭 선생의 아버지와 서모가 거주하셨다고 한다. 밭도 7000평 정도 있었다. 아버지 맹정술은 선생과 함께 사시다가 약 2년 후 1953년 5월 8일 작고하셨다.
- 62) 맹화섭 선생은 서부면 고골에 개원하셨을 때나 구천면 곡교리에 개원하셨을 때나 면사무소 일을 자주 도와주었다고 한다. 약국에 환자분이 찾아오면 맹웅재 교수는 면사무소에 가서 면 행정을 도와주고 있던 맹화섭 선생을 모셔오는 일이 많았다. 한번은 면사무소에서 어떤 선거가 있었는데 친구분들이 선생의 자택에 모여서 선거 준비하던 기억도 있다고 하였다. 5男 맹필재 님의 증언에 따르면 맹화섭 선생은 선거로 선출한 구천면 초대 면장을 역임하셨다고 한다. 맹웅재 교수의 기억은 아마도 이 선거 운동인 듯하다. 선생은 천호동에서도 명의로 소문이 나서 유명 인사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 63) 1948년 7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1949년 2월 신익희가 민주국민당을 창당하여 야당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어 이승만과 서로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생겼다.
- 64) 최인규는 맹화섭 선생님님과 원래부터 단짝친구였다고 한다. 5.16 이후 최인규가 감옥에 있을 때 맹화섭 선생에게 옥중 편지를 많이 보냈으나 선생은 읽어보지도 않고 모두 버리셨다고 한다.
- 65) 구천면 곡교리(천호동)는 서울과 가까워서 당시 지서에는 파출서에서 나와 보초를 섰다. <녹취록 발췌>
- 66) 즉 성동구 자양동이다. 맹웅재 교수는 당시 10살이었는데 학교를 마치면 어머니가 싸 주신 도시락을 맹화섭 선생에게 가져다 드리기 위해 곡교리에서 버스를 타고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내려 자마장(雌馬場)까지 걸었다고 한다. 맹화섭 선생은 자마장에서 숙식을 하셨기 때문에 5~6칸 도시락에 아침, 점심, 저녁 3끼 식사를 담아 매일 전해드렸다고 한다. 돌아오는 버스를 놓치는 날에는 자마장에서 걸어서 광나루다리를 지나 집으로 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녹취에 따르면 당시 선생은 성동구청 토목과 과장의 부탁으로 구청의 서류 작성하는 일도 도와줬다고 하였다.
- 67) 이때 맹웅재 교수는 3학년이었으며 구서국민학교에서 전농국민학교로 전학하였다. 선생은 1954년까지 곡교리에서 사시면서 먼저 자마장으로 약국을 이전하였고 그 다음 같은 해 답십리로 자택을 이전하였다. 답십리 자택 근처에는 김일체육관(현 답십리 한성아펠시티)이 있었으며 우물열 큰기와집이었다고 한다. 12평이었는데 당시 답십리에서는 큰 집이었다고 한다.
- 68)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교차로에 위치하였다. 현재 광장시장에서 세운상가 쪽 건너편 모퉁이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자리에 있었다. 맹웅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종로4가 교차로에는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3대 약방이 있었는데 원제약방, 천일약방, 강원약방이었다. 원제약방(현 원제한의원)은 아직 있으며 천일약방과 강원약방은 없어졌다. 천일약방은 원제약방에서 청계천 가는 방향으로 있었다. 현재 천일상가라는 이름만 남아있다.

이 당시 쌀 일곱 가마(1가마에 1만 60환) 값이었다고 한다. 선생은 강원약방에 근무하면서 생활이 다소 안정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으며 다행히 이 시기에 한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부터 면허를 가지고 있던 의생(醫生)과 해방 후 면허를 취득한 한지의생(限地醫生), 한지한 의사(限地漢醫師)에게 새로 제정된 한의사면허증을 부여하기 위해 경과조치로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을 실시하였다⁶⁹⁾. 맹화섭 선생은 4289(1956)년 2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응시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했으며 연이어 4290(1957)년 4월 7일 제7회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⁷⁰⁾⁷¹⁾.

그런데 강원약방에서 받는 급여는 물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져 나중에는 쌀 일곱가마 가격이 되질 않았다. 또 한의사 면허 취득 후 다음 해에 선생의 자식분들

이 한의원 개원을 권유하였다. 선생은 개원을 해서 만약 한의원이 잘 안되면 공부도 못 시키게 되고 어떻게 할 거냐고 자식분들에 의중을 물었다. 이에 자식분들은 모두 감내하겠다고 해서 개원을 결정하였다.

그 (강원약방에) 댕기다가 보니까 애들이 그래. 아버지는 약국도 못하실 거라구.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 공부 못할까 봐서 거기서 봉급을 받으면 그건 우리가 학교를 댕길 수가 있지마는 그 학교를 거기서 나오면 별안간 (한의원을) 내매는 약국해서 수입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도 모르니까 못허시게 되니까 어떻게 할려너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그만 두더라도 약국을 허셔야 될 꺼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약국을 내마 그랬죠.



그림 5. 맹화섭한의원의 개원과 이전

1번은 안남동5가 116-3번지 맹화섭한의원 개원 장소이며 현재 오선고시텔이 있다. 한의원 위치를 설명할 때는 곰보추탕 옆길, 안감내 다리 앞에 있다고 하였다. 1번 안의 노란색 네모가 한의원 자리였다. 2번은 옛 주소가 신설동 4번지 19호이고 1963년부터 거주하였으며 1977년에 건물을 올리고 이전 개원 한 장소다. 현재는 해운한복이 있다. 3번은 이기문 씨 집에 개원하기 전에 잠시 개원했던 장소다.

69) 법제처 (1961.10.16.)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검정시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2.3.4.)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은 한의대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응시 자격을 주는 일종의 검정고시로 1부, 2부에 나누어 과목시험을 봤다. 1961년도 시행한 한의사검정시험 규정에는 “한의사검정시험은 학술시험 및 실지시험으로 구분하고 학술시험을 다시 제1부시험 및 제2부시험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학술시험 제1부 시험과목은 생리학, 약물학(한약에 한한다), 병리학, 해부학, 위생학이며 제2부 시험과목은 진단학, 내과학, 소아과학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실지시험이었다. 제1부시험 합격자가 아니면 제2부시험을, 제2부시험 합격자가 아니면 실지시험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선생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과목시험은 어려웠으며 한의사 국가고시는 아주 쉬었다고 한다.

70) 역대장관목록 (2020.12.24.) “장관소개”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022.3.13.)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 합격증은 1대 보건사회부 장관 최재유가, 한의사자격증은 2대 보건사회부 장관 정준모가 발행하였다.

71) 맹웅재 교수에 따르면 안병국(安秉國), 채인식(蔡仁植), 신길구(申佳求) 선생이 집필하신 교재가 모두 이때 만들어졌다.

1958년 가족회의의 결정으로 맹화섭 선생은 성북구 안암동5가 116의 3번지⁷²⁾, 곰보추탕집⁷³⁾ 옆에 있던 친구분 이기문 씨⁷⁴⁾의 한옥집에서 맹화섭한의원(孟華燮漢醫院)을 개원했다⁷⁵⁾. 이기문 씨는 맹화섭 선생이 강원약방에서 근무했던 한의사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모두 소개시켜 주었고 그 분들이 한의원에 와서 한 첩 두 첩 지어다 약을 복용하고 치료 효과를 보더니 점점 환자가 늘어 한의원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당시에 선생의 자택은 답십리에 있었는데 1963년 가을 신설동 4번지 19호⁷⁶⁾가 매물이 나와 답십리 자택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바깥채를 사서 이사를 왔다. 신설동 집은 본래 안채와 바깥채가 따로 있고 문은 같이 사용하던 한옥집이었는데 10여 년이 지나서 안채에 살던 주인이 매매를 내놓아서 안채까지 구입하게 되었다. 안채까지 구입한 맹화섭 선생은 1976년에 두 집을 헐어서 2층으로 건물을 올리고 1977년에 한의원도 이전하였다⁷⁷⁾.

널리 알려진 대로 소애선생은 1970년 안암동5가 맹화섭 한의원에서 본과 4학년을 다니던 맹용재⁷⁸⁾⁷⁹⁾ 교수를 위해 『方藥合編』 강의를 시작하였다. 6년 뒤, 사사받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강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方藥指鍼』을 출간하였다. 『方藥指鍼』은 필사본으로 선생이 책 전체를 직접 자필로 쓴 것이다. 『方藥指鍼』을 저술할 때는 저녁에 이불에 엎드려서 팔꿈치에 굳은살이 생기도록 썼다고 하셨다. 선생은 『方藥指鍼』을 저술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내 셋째아들이 (경희대)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한의과 대학을 다녔거든요. 한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 졸업 맛을 해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 한의과대

학을 다니는데 내가 하나도 집에서 가르친 게 없어. 근데 일 년만 있으면, 이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좀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해에 당해서 내가 내 아들보고 그런 얘길 했어요. “너를 한의과대학을 보내고, 하나도 널 내가 뭘 가르쳐주지 않은 거는 한의과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 결국 내 얘기 못 들어보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나가서 뭐 어떻게 할 거니까 그 나한테 네 친구를 한 7~8명⁸⁰⁾ 데리고 오면 밤마다 저녁에 오면 내가 『方藥合編』이라도 그걸 띄어주마. 그러니 데리고 오나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개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온 애들하고 내 셋째아들하고, 내 저녁마다 『方藥合編』을 놓고선 그 얘기를 해주곤 했죠. 그러길, 『方藥合編』 가지고 8개월을 해줬나 그럴 거예요. 그 오랜 동안은 밤에 얘길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개들이 나가서 바람을 불었어. “맹화섭이한테서 일 년을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나와서 개업하는 데 도움이 더 된다” 그런 얘길 해 가지고 우리 집이 해마다 이렇게 온다고 사람이, 그래서 이십 몇 년을 애들을 가르쳤어요. 밤이면 따로 가르쳤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밤에 가르칠 수 없어. 그래서 새벽에 가르쳤죠. 새벽에 여기서 두 시간씩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학교로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꼭 애들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집이 집이 작으니까 많이 못 오죠. 그러니 20여 명씩 여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십 몇 년을 가르친 거야.

72) 현재는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나 당시는 성북구 안암동 5가였다.

73) 현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67-8번지. 맹용재 교수는 맹화섭한의원의 위치를 설명할 때 곰보추탕 옆집 안감내 다리 앞이라고 하면 다 알았다고 하였다.

74) 이기문 씨는 예전에는 하남시 석바대에서 가계를 하다가 정리를 하다가 서울로 와서 안암동 집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 집은 예전에 양조장으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그의 직업은 토지개발과에서 다리를 놓거나 개울을 복개하는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이었다. <녹취록 발췌>

75) 강원약방에서 약재를 구입하여 시작했다고 한다. 맹용재 교수에 따르면 당시 폭 170 cm, 높이 180 cm 정도 되는 약장이 있었다고 하며 이기문 씨 한옥에 개원하기 전에 곰보추탕에서 북쪽으로 약 60 m 위에 잠시 개원을 했었다고 한다.

76) 행정구역 개정 이전에는 신설동 4번지 19호였다. 맹용재 교수의 본적 주소다. 현재 주소는 신설동 91-311번지이다. 유가족이 2016년 11월에 매매를 하고 이사를 갔으며 2022년 현재 한의원 건물에는 해음한복이 있다.

77) 당시 소애 선생의 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외사촌되는 사람이 은행에 상무로 있었는데 그 분의 도움으로 한빛은행에 건물을 담보잡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었다고 하였다. <녹취록 발췌>

78) 東亞日報 (1965.2.23.) “後期大學合格者”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2.3.1.) 동양의과대학(東洋醫科大學) 1965년 입학. 입학인원은 총 40명이었다. 당시 입학동기로는 신재용, 안창범, 김문곤 등이 있다. 1965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로 편입되었다.

79) 신재용(申載鏞) 한의사(사단법인 동의난달 명예이사장)는 맹용재 교수와 입학 동기이자 친구이다. 또 아버지 신승섭(申昇燮) 선생은 맹화섭 선생과 둘도 없이 가깝게 지낸 친구 사이였다. 신재용 님의 증언에 따르면 두 분은 친목회를 만들어서 부부 동반 야유회도 다니셨으며 사모님들도 서로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신재용 님이 소애 선생님께서 올린 조사(弔辭)가 『醫林』 286호에 실려 있다.

80) 박동원 교수, 정규만 교수, 안창범 교수, 이창근 한의사, 송광성 한의사 등이 당시 맹용재 교수와 함께 첫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었다. 송광성 한의사가 첩필로 글씨를 쓰면 맹용재 교수가 등사를 하여 『方藥合編』 강의 교재를 만들었다고 한다.

『方藥指鍼』이라고 책의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그래서 『方藥指鍼』이거든, 지침(指針)이라는 게 방약(方藥)하면 (설명이) 없거든. 그래서 이 ‘지침’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해설을 넣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方藥合編』에 있는 걸 절충하면서 『東醫寶鑑』에 이런 치법(治法)이 나오는 걸 여기다 넣었다, 여기다 이 책에다 넣었다, 그래서 『方藥指鍼』이라 내 말을 쓴 거거든.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다 될 수도 있고, 이것만 보기도 뭐한 거는 여기 지침에 나오는 데가 있잖아. 거기

를 찾아보면, 여기 방문(方文)이 전부 보통 인건 다 있는 거니까,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지.

1976년 이후에는 『方藥指鍼』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2001년까지 강의를 계속하셨다. 맹화섭 선생은 활발한 학회활동과 대외활동, 학생강의⁸¹⁾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며 매일같이 밤늦게 한의학 연구에 매진하다가 2002년 5월 19일(음력 4월 초파일)에 세수 88세의 나이로 작고(作故)하셨다.



그림 6. 소에 맹화섭 선생의 행적. 돌마면에서 출생하여 안암동5가에 맹화섭한의원을 개원하기까지를 그림으로 요약하였다.

1. 돌마면에서 판교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곧은골로 농사를 지으러 감.
2. 금옥당약국에 취직함.
3. 법교국에 취직함.
4. 광주시 면서기로 퇴촌면에서 일함.
5. 서부면으로 전근.
6. 군농회에서 근무함.
7. 해방 후 역말에서 아버님과 약방 운영
8. 동부면 석바대로 분가하여 개원함.
9. 한지의생 합격 후 서부면 고골로 이전 개원함.
10. 구천면 곡교리로 이전 개원.
11. 신익희 사건으로 자마장으로 이전 개원함.
12. 답십리로 자택 이전함.
13. 강원약방에 취직함.
14. 한의사면허 취득 후 안암동에서 맹화섭한의원을 개원함.
15. 자택을 답십리에서 신설동으로 이전함.

81) 본래 학생들 강의는 소에선생이 75세가 넘어서는 안 한다고 하셨으나 동양의학회(東洋醫學會) 학술집담회에서 학생들이 다시 강의를 요청하였다. 집담회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1달에 1번인데 그걸로는 다 가르칠 수가 없어 맹화섭 한의원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2시간씩 강의를 다시 진행하였다. <녹취록 발췌> 필자가 사사받던 2001년에도 강의를 진행하고 계셨다.

표 1. 소애 맹화섭 선생 연표(1915~2002)

소애 맹화섭 선생 연표		
1915년	1세	1915년 2월 21일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분당리에서 아버지 정술(正述)과 어머니 단양이씨(丹陽李氏)의 외아들로 출생.
1923년	9세	낙생면 관교공립보통학교에 입학.
1929년	15세	2월 7일 어머니 단양이씨 지병으로 별세. 3월 22일 관교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곧은골(直洞)에서 화전(火田)을 일구며 농사일을 시작.
1930년	16세	모내기 중 학질로 쓰러짐. 1년간 지은 농사를 접고 아버지 정술과 서울로 올라옴.
1931년	17세	금호동에 거주하시던 큰아버지 영술(榮述)의 도움으로 당주동 금옥당약국에 사환으로 취직.
1933년	19세	금옥당약국 주인 조명호 선생이 일본으로 가면서 약국을 그만두고 나와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함.
1935년	21세	3월 지인의 소개로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혼인. 결혼 후 폐병이 들어 일을 쉬. 가을이 되어 일을 시작하려는데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을 1첩 복용 후 크게 병이 나서 몸져 누움. 정이모 씨가 처방한 당귀보혈탕(當歸補血湯)을 드시고 회복됨. 이후 자음강화탕(滋陰降火湯)을 복용하다 북청물장수 주 씨(朱氏)의 조언으로 사육탕(四六湯)을 처방하여 3년간 복용.
1938년	24세	평양 법교국(法橋局)에서 9월부터 사육탕(四六湯)을 드시고 건강이 회복됨.
1939년	25세	1939년 2월 18일에 서울로 올라옴. 길 씨(吉氏) 집에 머물던 사람의 소개로 퇴촌면 면서기로 취직. 가족과 함께 돌마면으로 내려옴. 퇴촌면 면서기의 두통과 광동리 구장 며느리의 산후풍을 치료하면서 명의로 소문남. 업무를 보러 나가면 일을 마을사람들이 대신 해 주고 하루 종일 진료만 함. 왕진도 자주 감.
1940년	26세	3월 서부면으로 발령. 반년 후 낙생면으로 전근함.
1941년	27세	군농회에 들어가서 광주군 16면을 모두 출장 다니며 진료활동을 함.
1945년	31세	해방 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경안면 역말(현 광주시 역동)에서 아버지와 같이 약국을 운영함. 연말에는 동부면 신장리 석바대로 분가하여 약국을 개설함. 3男 맹웅재 교수 출생.
1946년	32세	1월 한지의생 시험에 합격. 합격 후 서부면 고골(현 하남시 춘궁동)으로 이전 개원함.
1949년	35세	구천면 곡교리(현 천호동)으로 이전 개원함.
1950년	36세	9.28 서울 수복 때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군생활을 함. 1.4후퇴 당시에는 경상북도 영천군 대창면에서 근무함. 가족은 곧은골로 피란감.
1953년	39세	5월 아버지 맹정술 별세.
1954년	40세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익희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고초를 당함. 약국 운영도 방해하여 자마장으로 이전. 얼마 후 자택도 답십리동 294번지로 이전함. 이후 외가 친척의 부탁으로 종로4가 교차로의 강원 약방에 취직함.
1956년	42세	2월과 9월에 실시한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함.
1957년	43세	4월 제7회 한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함. 한의사면허 취득.
1958년	44세	성북구 안암동5가 116의 3번지에 맹화섭한의원 개원.
1963년	49세	가을에 신설동 4번지 19호로 자택 이전.
1970년	56세	맹웅재 교수의 임상을 위하여 『方藥合編』 강의를 시작.
1976년	62세	『方藥指鍼』 출간.
1977년	63세	신설동 자택을 2층 신축 건물로 올리고 맹화섭한의원을 자택 1층으로 이전함.
1996년	82세	1월 24일 부인 전주이씨 별세.
2002년	88세	5월 19일 작고.

Ⅲ. 근대한의학의 참스승 맹화섭 선생

본 논문은 모두 소애선생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녹취 정리한 것이다. 해방 이후의 행적은 3男인 맹웅재 교수의 고증을 받았다. 따라서 소애선생의 삶을 사실에 가깝게 정확히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보통 큰 업적을 남긴 위인

의 기록을 남길 때는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미화하여 인물을 비범하게 묘사한다. 이를 위해 수많은 왜곡과 과장이 가필되어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⁸²⁾. 이에 비해 본 논문에서 소애선생이 말씀하신 삶은 진실 그 자체이며 한의학의 역사이기도 하다. 또 그가 남긴 뛰어난 임상 기록과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소애선생의 학

82) 지금까지 소애선생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었다. 『醫林』에 2002년 6월, 2004년 3월에 실린 2편의 글이 있었지만 모두 소애선생이 직접 말씀하신 기록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과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987년 6월 10일 한의사협보(韓醫師協報)의 취재 기사는 소애선생을 직접 인터뷰 한 것이지만 내용이 단출하고 각색이 되어 있어 선생의 생애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문적 깊이와 고고한 인품을 가늠할 수 있다.

당시 한의대 학생들은 학부시절에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임상강의를 외부 강의를 통해 습득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바로 개원하거나, 부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임상수련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던 한의대 학생들에게 맹화섭 선생의 임상강의는 거의 필수적이었다.

필자는 소애 맹화섭 선생을 박동규라는 사람을 통해 1998년 가을에 소개받았다. 박동규는 맹화섭 선생의 5남 맹필재의 친구로 1995년부터 필자와 알게 된 사람인데 필자는 박동규의 소개로 당시 명망이 높았던 맹화섭 선생에게 개인적으로 사사(師事)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필자는 소애 선생과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겼다⁸³⁾.

돌이켜보면 소애 맹화섭 선생은 항상 당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다. 나이가 어린 학생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셨다. 소애(小涯)라는 호(號)도 선생께서 직접 만드신 것인데 스스로를 ‘작은 개울’이라고 하셨으며 『方藥指鍼』의 서문에서도 “나의 고루(固陋)하고, 천식(淺識)임을 무릅쓰고 간행하는 바이오니...”라고 하며 겸손함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 그러나 『方藥指鍼』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타나는 소애 선생의 방대한 지식과 학문적, 임상적인 업적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한의사들이 이루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었다.

소애 선생은 어린 시절 보통학교에서 글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졸업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어민 수준의 일본어 실력으로 면서기로 근무하며 일본어로 공문서를 작성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소애 선생의 일본어 실력은 일본 한방의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한의학의 임상과 이론의 자양을 풍부하게 하였다⁸⁴⁾. 또 소애 선생은 1946년 한지의생(限地醫生)

시험에 대해 “아는 대로 적당히 쓸 수 있는 문제라서 엉터리로 써냈는데 합격했다”고 하셨지만 사실을 확인하면 당시 의생시험의 합격률은 2~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까다로운 시험이었다⁸⁵⁾. 『方藥指鍼』의 강의는 고방과 후세방을 넘나들며 막힘없이 진행되었는데 수준 높은 강의였지만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추어 최대한 쉬운 말로 강의하셨다. 평소 소애 선생은 “나는 한의학을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없이 혼자 공부한 것⁸⁶⁾이다. 그러니 내가 혼자 공부해서 요만큼이라도 하니 똑똑하고 많이 배운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며 당신을 낮추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어 훌륭한 한의사가 되도록 공부를 독려했다.

소애 선생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낮은 자세로 진료에 임하였다. 필자가 소애 선생에게 “환자를 진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여쭈었을 때 선생은 “환자의 편의를 봐주고 환자 위주로 진료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또 “자신이 고치기 어려운 병은 붙들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고 하셨으며 “내가 병을 고치겠다고 욕심내서 약을 쓰다가 오히려 환자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하여 항상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료를 하라고 하셨다⁸⁷⁾.

소애 선생은 뛰어난 임상실력으로 환자들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에게서도 존경받는 한의사였다⁸⁸⁾. 소애 선생은 당신의 임상기록과 의안(醫案)을 50여 편이 넘는 논문과 투고로 세상에 남겼다⁸⁹⁾. 또 선생은 임상강의를 통해 당신의 모든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어 주었다. 금옥당약국에서 일할 때 여러 날 복통으로 고생하던 옥매(玉梅)라는 아이를 소적정원산(消積正元散)⁹⁰⁾으로 치료하여 조명호 선생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황금탕(黃芩湯)으로 임신부의 맹장염을 치료하고 치자시탕(梔子豉湯)으로 처녀의 심한 두드러기를 치료하기도 하며 이중탕(理中湯)으로 견

83) 필자는 맹화섭 선생으로부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약 4년간 사사(師事)를 받았다. 당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시중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었는데 진료를 마치고 저녁 8시쯤 신설동의 맹화섭한의원에 도착하여 밤 12시가 되도록 늦게까지 가르침을 받았다.

84) 국내에 소개된 일본 한방의학(漢方醫學) 서적은 맹화섭 선생의 소개로 알려진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1978년 2월 18일에 소개한 『藥徵』이 있다.

85) 역사편찬위원회, 『1898~2011 韓醫師協會史』 「일제치하의 한지의생 제도」, 서울:대한한의사협회, 2011.

86) 선생의 말씀에 따르면 소애 선생의 스승님으로는 금옥당약국의 조명호 선생이 유일하다. 또 강의 중에는 가끔씩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던데...”라며 약국을 운영하였던 아버지 맹정술의 임상 예를 언급하셨다. 그 내용은 『方藥指鍼講座』에도 서술되어 있다. 가전(家傳) 의서(醫書)로는 선생의 조부께서 『東醫寶鑑』과 기타 의서에서 요방(要方)을 발췌하여 편저하신 『扶吾方』이 전해온다. 『方藥指鍼』 서문에 따르면 선생의 조부께서는 비록 임상을 하지 않으셨으나 조부의 저서 『扶吾方』은 아버지 정술과 소애 선생이 훗날 의업(醫業)에 종사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87) 당시 한의사들은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맹화섭 선생님에게 처방을 부탁하거나 환자를 보내서 진료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88) 금오 김홍경 (2013.10.25) “한의칼럼” 한의신문 <<https://www.akomnews.com>> (2022.3.10.) “맹화섭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셨다. 인품이 마치 백학처럼 고고한 향기를 품은 듯, 돈에 관해서는 일체 무관심했다. 육체적으로 고되지만 정신적으로도 고달팠던 그 눈 어두운 맹아처럼 공부에 도전하실 뿐이었다. 더군다나 임상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정신이 정말로 놀라웠다.”

89) 김남일, 「의림과 대한한의학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맹화섭의 학술활동」, 한국사학회지, 2021;34(2):107.

90) 맹웅재 교수에 따르면 염태환(廉泰煥) 선생은 평소 소애 선생으로부터 古方 처방법에 대해 많은 지도를 받았다. 염태환 선생의 저서에는 소애 선생이 소적정원산(消積正元散)으로 옥매를 치료한 임상례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廉泰煥, 朴盛洙, 『現代漢方講座』, 서울:행림출판, 1992:773-776.

비통을 치료하였다는 등 『方藥指鍼講座』의 수많은 임상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소애선생의 뛰어난 임상 실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선생은 평소 『東醫寶鑑』, 『景岳全書』, 『醫學入門·傷寒賦』, 『石室秘錄』, 『醫宗金鑑』 등을 중요시하셨으며 사상체질이 뚜렷한 경우에는 사상의학도 활용하셨다. 또 『傳忠錄』과 『扶陽論』도 강조하셨다. 또 일반 한의사들이 안 보는 책도 많이 보셨는데 이는 소애선생의 뛰어난 임상실력의 바탕이 되었다⁹¹⁾. 또 선생은 학생들에게 위의 서적 이외에 『萬病回春』, 『葉天士女科』, 『傳青主男女科』, 『小兒醫方』, 『四象方藥合編』, 『濟衆新編』, 『醫門寶鑑』 등을 필독서로 권유하셨다⁹²⁾.

필자는 소애선생이 살아오신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생의 고매한 인품 또한 엿볼 수 있었으며 선생의 뛰어난 임상실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소애선생의 강의 녹취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한의사 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한의학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잘 알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술적인 가치 때문에 소애선생의 행적은 James Flowers 교수의 논문으로 영어문화권에 널리 소개되어 있다⁹³⁾.

필자는 소애선생의 강의 녹취를 통해 어릴 적부터 허약한 체질을 가진 선생이 한의학에 정식 입문하게 된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선생의 저서 『方藥指鍼』에는 금옥당약국에서의 삶이 녹아 있으며 광주군에서 먼서기를 지내면서 얻은 수많은 임상경험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 해방 이후 당시 한의계를 대표하던 안병국(安秉國)⁹⁴⁾, 채인식(蔡仁植), 배원식(裴元植), 김정제(金定濟), 김영훈(金永勳), 신길구(申吉求), 권도원(權度元), 이종형(李鍾馨), 한동석(韓東錫)⁹⁵⁾ 선생 등과 교류⁹⁶⁾하며 얻은 임상기록과

틈틈이 채록한 귀중한 처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으며 소애선생이 아프실 때 복용했던 처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개인 진료부이기도 했다⁹⁷⁾. 따라서 『方藥指鍼』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한의학의 역사책이며 임상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다. 소애선생의 생애는 선생 개인의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나라 한의학 역사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한다.

IV. 맺음말

소애 맹화섭 선생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소애 맹화섭 선생은 1915년 1월 8일(음)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분당리에서 출생하였다. 1929년 판교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어려서는 허약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올라왔다. 17세(1931년)에 서울에 사시는 큰아버지 친구의 도움으로 서울 당주동 금옥당약국에 취직하면서 한의학에 정식으로 입문하였다.
2. 소애선생은 조명호 선생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19세(1933년)에 금옥당약국을 그만두었다. 21세인 1935년 3월에 결혼을 하고 폐병이 발생하여 가을까지 일을 쉬었다. 그런데 가을에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을 잘못 복용하고 다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후 당귀보혈탕(當歸補血湯), 자음강화탕(滋陰降火湯)을 복용하여 다소 회복되었고 이후 북청물장수 주씨(朱氏)의 권유로 육미지황탕합사물탕(六味地黃湯合四勿湯)에 맥문동(麥門冬), 오미자(五味子), 육계(肉桂), 구기자(枸杞子)를 가미하

91) 맹웅재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책들 중에서 『醫學入門·傷寒賦』를 가장 강조하셨다고 한다. 『傳忠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한다.

92) 孟華燮. 『方藥指鍼講座』. 서울:대성문화사. 1999:887.

93) James Flowers. 『KOREANS BUILDING A NEW WORLD: EASTERN MEDICINE RENAISSANCE IN THE CONTEXT OF JAPANESE RULE, 1910-1945』. Baltimore:Johns Hopkins University. 2019.

94) 안병국 선생은 동양의과대학(1955년부터 1965년까지 성북구 안암동 3가 보문사 앞에 있었음)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강의를 마치면 맹화섭한의원을 지나 버스를 타고 청량리로 퇴근을 하셨는데 자주 소애선생을 찾아와서 담소를 나누고 집에 가셨다고 한다. 하루는 안병국 선생이 맹화섭한의원에 들르지 않고 그냥 퇴근하시길래 맹웅재 교수가 “오늘은 왜 안 들르고 그냥 가세요?”하고 여쭙니 안병국 선생은 맹웅재 교수에게 “너희 아버지는 술을 안 마셔서 만나도 재미가 없어.”라고 농담을 하셨다고 한다.

95) 권경인(權景仁)은 그의 학위논문 『韓東錫의生涯에 관한研究』에서 소애선생이 한동석 선생에게 본초(本草) 등을 배운 적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소애선생과 한동석 선생이 만난 것은 아무리 빨라도 한동석 선생이 서울로 상경한 1956년 이후의 일이며 소애선생은 1931년 이미 조명호 선생에게 본초, 방제, 진단 등을 배워 오랜 기간 임상을 하였기 때문에 한동석 선생에게 본초를 배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맹웅재 교수는 소애선생과 한동석 선생은 4살 차이로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학문을 교류하는 동료였다고 증언한다. 소애선생은 한동석 선생이 1966년 발간한 『宇宙變化的原理』의 간행위원을 맡기도 했다.

96) 한의학 세계화의 선구자, 際光 배원식 (2019.01.14.) “사회&라이프” 시사오늘·시사ON <<https://www.sisaon.co.kr>> (2022.05.11.) 1956년 배원식 선생은 학술연구단체가 전무함에 안타까움을 느껴 현재의 “대한한학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의학회를 창립했다. 맹화섭 선생은 이종형 선생 등과 당시 창립멤버로 활동하였다. 맹화섭 선생은 동방의학회와 의림사를 통한 임상학술좌담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학술적 연구가 미미하던 시기에 한방임상교육과 토론문화를 이끌어 갔다. 임상학술좌담회는 당시 한의계에서는 이단으로 여겨지던 권도원 선생의 8개월 강의를 실시하는 등 한의학의 학문적 풍도를 쇄신하는 한편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97)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여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24세(1938년)가 되는 해 9월 부터 이듬해인 1939년 2월18일까지 평양 법교국에서 근무하며 약을 계속 복용하여 건강이 회복되었다.

3. 25세(1939년)에는 경기도 광주군으로 내려가 퇴촌면 면서기에 임용되어 군농회에 근무하면서 광주군 16면을 모두 출장 다니게 되었다. 선생은 탁월한 임상실력으로 광주군에서 명의로 소문이 났다. 선생은 출장 가는 곳마다 하루 종일 진료만 했으며 면서기 일은 마을 사람들이 대신 해줬다. 소애선생은 해방이 되면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었다.
4. 소애선생은 해방 이후 경안면 역말에서 아버지와 함께 약국을 잠시 운영하다가 분가(分家)하여 하남시 동부면 석바대로 나와 약국을 개원을 하였다. 32세(1946년)에는 한지의생 면허를 취득하고 서부면 고골로 이전하여 개원하였다. 35세(1949년)에는 구천면 곡교리(천호동)로 이전 개원하였다. 선생은 40세(1954년)에 제3대국회의원 선거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신익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고초를 당했다. 이 일로 같은 해 자마장(자양동)으로 약국을 이전하고 얼마 후 답십리로 자택까지 이전했다.
5. 1954년 자마장에서 잠시 약국을 하다가 같은 해에 처가 친척의 부탁으로 종로4가 강원약방에 취직을 하였다. 44세(1957년)에는 제7회 한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다음해(1958년)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안암동5가 116의 3번지 이기문 씨의 한옥집에서 맹화섭한의원을 개원하였다.
6. 소애선생은 56세(1970년)에 3男 맹웅재 교수를 위해 『方藥合編』 강의를 시작하였다. 또 이를 바탕으로 62세(1976년)에 『方藥指鍼』을 출간하였다. 『方藥指鍼』 임상강의는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였으며 2001년까지 32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63세(1977년)에는 신설동 4번지 19호에 신축건물을 지어 맹화섭한의원을 이전하였으며 2002년 5월 19일 향년 88세로 작고할 때까지 왕성한 진료활동을 하였다.
7. 소애선생은 다양한 학회활동에 참여하여 당시를 대표하는 한의사들과 교류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학술지와 잡지에 50여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투고를 하는 등 끊임없는 학술활동을 펼쳤다. 또한 20여 편의 일본한방서적(日本漢方書籍)을 자비로 번역하고 소개하여 우리나라 한의학의 이론과 임상적 자양을 풍부하게 하였다.
8. 소애선생은 임상대가(臨床大家)로 뛰어난 임상기록들을

남겼는데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명의(名醫)로 명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고고한 인품으로 널리 존경받는 대학자였다. 『方藥指鍼』은 20세기 한의학을 대표하는 임상 교과서이자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후학들이 임상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소애선생이 한의학계에 남기신 큰 발자취는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지침이 되고 있다.

감사의 글

바쁘신 중에도 본 논문을 위해 밤늦게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증해주신 은사 맹웅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문헌

1. 孟華燮. 『方藥指鍼』. 서울:남산당. 1976.
2. 孟華燮. 『方藥指鍼講義抄錄』. 익산: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 연구반. 1985.
3. 孟華燮. 『方藥指鍼講座』. 서울:대성문화사. 1999.
4. 孟華燮. 「流行性 毒感의 治法」: 崔春根. 『臨床經驗方』. 초판. 서울:서울특별시한의사회. 1985:138.
5. 孟華燮. 「知覺神經麻痺·表裏麻痺即血痺. 高血壓」 「薏苡仁湯(名醫指掌)」 「麻杏薏甘湯」 「加味大柴胡湯」 「加味化痰湯」 「九味半夏湯」 「黃芪桂枝五物湯」 「防己湯」 「桂枝加朮附湯」 「桂枝加朮附湯加薏苡仁湯及防己湯材」 「桂枝芍藥知母湯」 「當歸拈痛湯」: 『臨床經驗方集』. 초판. 서울:동대문구한의사회. 1989:29-32, 151-160.
6. 廉泰煥, 朴盛洙. 『現代漢方講座』. 서울:행림출판. 1992: 773-776.
7. 안상우. 「小涯 孟華燮 20세기 전통임상교육의 사표 - 대표저작과 학문세계를 중심으로-」. 경기도한의사회 역대의학인물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2019.
8. 김남일. 「『의림』과 『대한한의학회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맹화섭의 학술활동」. 한국의사학회지. 2021;34(2):97-108.

9. 이주연.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통제」. 의사학. 2010;19(2):387-400.
10. 權景仁. 「韓東錫의 生涯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학위논문. 2001:36-47.
11. 김민아, 정인하. 「조선 후기 이후 평양의 도시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013; 29(11):217-226.
12. 신영전, 서제희. 「미군정 초기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한국인 의사 10인의 초기 한국보건행정에서의 역할」. 보건행정학회지. 2013;23(2):196-206.
13. 이예정. 「小涯 孟華燮 先生」: 이수완. 『醫林』. 6월호. 서울:(주)킴씨. 2002:30-35.
14. 김효진. 「名望있는 韓醫院_맹화섭한의원 小我를 넘어서 利他行으로」: 이수완. 『醫林』. 3월호. 서울:(주)킴씨. 2004 :46-49.
15. 역사편찬위원회. 『1898~2011 韓醫師協會史』 「일제치하의 한지의생 제도」. 서울:대한한의사협회. 2011.CD.
16. James Flowers. 「KOREANS BUILDING A NEW WORLD: EASTERN MEDICINE RENAISSANCE IN THE CONTEXT OF JAPANESE RULE, 1910-1945」.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2019.
17. 박영환. 녹취록. 1999년 8월 27일, 2001년 9월 21일, 2000년 4월 20일, 2001년 4월 9일. 박영환 자료.
1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관교보통공립학교”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http://seongnam.grandculture.net>> (2022. 3.1.).
19. 韓醫師協報 (1987.6.10.) “어떻게 지내십니까 孟華燮 씨” 한의신문 <<https://www.akomnews.com>> (2022.3.1.).
20. 每日申報 (1936.8.26.) “平壤舊街和信越便에 六層 『셀딩』 出現!” 국립중앙도서관 <<http://lod.nl.go.kr>> (2022. 3.15.).
21. 이광표 (1972.9.5.) “(2)산·강·길·도시|본사 이광표 특파원 평양 왕래기”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2022.3.1.).
22. 東亞日報 (1933.6.7.) “平壤 乾材 藥局 法橋局” naver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2. 3.10.).
23. 이완범, 김희만. (2001) “전예용(全禮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3.15.).
24. 역대장관목록 (2020.12.24.) “장관소개”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022.3.13.).
25. 東亞日報 (1965.2.23.) “後期大學合格者”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2.3.1.).
26. 금오 김홍경 (2013..10.25) “한의칼럼” 한의신문 <<https://www.akomnews.com>> (2022.3.10.).
27. 빈센트 (2017.12.11.) “기록사진: 한국군 제1사단의 평양수복(1950년10월)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 (2022.3.3.) 사진재인용.
28. Eun-Kyung Kim (2011.7.15.) “전쟁과 군인 1부 기억의 파편을 찾아서 1” YouTube <<https://youtu.be/NqJuc3SmPVY>> (2022.3.13.).
29. 현대의 강동구 (2013) “강동의 역사와 문화” 강동문화원 <<http://www.gdcc.or.kr>> (2022.05.11.).
30. 朝鮮總督府. 『京城市街圖』. 京城:朝鮮總督府房庶務部印刷所. 1915.
31. 川戶榮治. 『平壤府案内圖』. 平壤:帝國在郷軍人會平壤分會發行. 1926.
32. 『P'YONGYANG(HELJO)』. US:A.M.S. L951 First Edition (AMS 1). 1946.
33. P'yongyang2022. Google Earth. <<https://www.google.co.kr>>
34. 『KYONGSONG OR SEOUL (KEIJO)』. US:A.M.S. L951 First Edition(AMS 1). 1946.
35. 『한강의 기적 70년대 새서울 약도』. 서울:인창서관. 1970.
36. 林豹. 『大韓民國地圖·서울特別市地圖』. 서울:辭書出版社. 1960.
37. 김종혁. 『경기도의 근현대지도』. 경기도:현대지도문화사. 2005.